



거버넌스센터

Governance Center



거버넌스센터 소개

「거버넌스센터」는 2003년에 창립한 「민관협력포럼」에서 기원한다. 「민관협력포럼」의 창립으로 한국에 **최초 유일의 '거버넌스 캠페인'**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관협력포럼」은 창립과 동시에 단체 이름이기도 한 '민관협력포럼'이라는 명칭으로 정기 포럼을 개최하여 거버넌스의 이론과 사례의 현장 확산을 모색하였다.

2007년부터 매년 <민관협력우수사례 공모대회>를 개최, 2013년까지 정부, 기업, 시민사회를 망라한 모든 기관단체가 응모하는 범국가적인 거버넌스 캠페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민관협력포럼」이 발의하여 「거버넌스21클럽」이 만들어졌다. 2008년 7월 출범한 「거버넌스21클럽」은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에 거버넌스 국가 비전을 확산하고 거버넌스 리더십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거버넌스21클럽」은 창립 이후 국정 각 분야 최고위 책임자와 신망 높고 경륜 있는 인사를 초청하여 매달 '거버넌스조찬세미나'를 개최하며 오픈 이언 리더 상층에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환기하여 왔다.

2012년에는 유일 최대의 시민참여정책축제 <2012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을 제안, 주관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또한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파트너십'의 범주를 확장하여 이념을 빙자한 진영 대결 구도를 '파트너십'에 기반한 '생산적 경쟁'의 패러다임으로 돌파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진보 보수 간 '소통 콜로키움'을 제안, 2년 이상 꾸준히 모임을 갖고 이념갈등 의제와 관련한 최초의 공동 행동강령을 작성, 19대 총선을 앞두고 "21세기 성숙한 협력의 길을 찾는 진보보수 시민단체 활동가 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아름다운 동행21」 모임으로 이어졌다.

2013년 12월, 「민관협력포럼」은 창립 10주년 기념세미나와 기념식을 개최하고, 거버넌스 캠페인 10년의 발자취를 따라 『민관협력 10년, 거버넌스 국가를 향한 탐색』이라는 제목으로 5권의 자료전집을 발간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형용 대표는 「민관협력포럼」을 「거버넌스센터」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이듬해 4월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거버넌스센터」는 '거버넌스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보다 책임있는 거버넌스캠페인을 펼치는 거버넌스 연구, 지역혁신 솔루션 전문기관이다

「거버넌스센터」는 시민들의 삶의 현장인 지역을 혁신하고, 분권자치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를 혁신하고 민주주의를 진화발전시키고자 한다. 최고 수준의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문성에 기반하여 혁신의 모델들을 만들어 내고, 사업을 통해 사회적 임팩트를 강화하여 사회·세력 혁신을 추동함으로써 **글로벌화-선진화-인간화**를 국가발전 목표로 하는 '거버넌스 국가 구현'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거버넌스 국가 캠페인을 책임 있게, 그리고 국민적 참여와 지지, 지원 속에서 권위를 갖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거버넌스위원회'는 21세기 한국 사회가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며, 지구촌 선진 모범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거버넌스란 1차로 국정 운영에서 민·관 파트너십 모델이고, 확대하면 정부·기업·시민사회 3섹터 정립과 협력 모델을 이으며, 궁극적으로 행정, 산업, 문화, 교육, 복지, 과학, 봉사 등 사회 제부문영역이 동등한 위상에서 국가사회공동체 운영에 참여하는 휴머니즘 다원영역사회운영 체제를 지향한다.



사업 및 활동

거버넌스 센터의 사명

- 21세기 거버넌스국가 구현 기반 확대

비전

- 21세기 글로벌거버넌스를 선도할
아시아 대표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문 연구 실행 기관

사업기관으로서 거버넌스센터

- 지역혁신솔루션 전문기관

캠페인 전략(사업 방향)

- 거버넌스국가 비전의 구체화
- 거버넌스리더십 육성과
21세기 진보보수의 생산적 경쟁 촉진
- 거버넌스문화 확산과 사회·세력 혁신

조직구성

- 단위 전문 기관
 - 연구소
산하 지속가능발전연구소
 - 교육원
 - 로컬거버넌스본부
 - 정책컨벤션추진단
- 단위 전문회원모임
 - 국가거버넌스연구회
 -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회
 - 거버넌스리더스클럽

<거버넌스센터 고문 자문위원단>

김진현(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이세중(환경재단 명예이사장) 김영래(아주대 명예교수) 박승주(세종로국
정포럼 이사장) 박재완(성대 명예교수) 이부영(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원혜영(전 국회의원) 이
주영(전 국회의원)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장영철(피터드러커소사이어티 상임대표) 정진승(전 APEC
기후변화센터 소장)

<거버넌스센터 이사진>

이형용(이사장) 송창석(교육원장) 박상필(연구소장) 박홍순 오단이 유한범 윤창원 이명우 정창수 최윤창 외

주요 사업

- 거버넌스국가 비전&정책 캠페인
 - <거버넌스전략 포럼> 운영
 - <거버넌스자치분권혁신포럼> 개최
 - <거버넌스국가21 보고서> 작성, 발간
 -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 주관
 -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
- 거버넌스 전문 교육사업
 - 거버넌스리더십스쿨 운영
 - 기관맞춤형 전문 교육서비스 제공
 - <거버넌스리더십스쿨 프로그램 구성안>
 - 로컬거버넌스아카데미(지자체공무원, 지역리더)
 - 거버넌스리더십아카데미(공공민간 사회지도자)
 - 거버넌스 고위지도자 과정(산학협력프로그램)
 - 거버넌스 미래리더십 스쿨(청년세대 교육)
 - 글로벌거버넌스 (국제기구 협력프로그램)
- 연구용역 및 컨설팅 사업
 - 지역 혁신 솔루션 제공
 - 거버넌스 전문 연구용역
 - 조직·사업 경영 진단, 컨설팅 제공
- 거버넌스 미디어 사업
 - <거버넌스리포트> <거버넌스국가신서> 발간
 - <거버넌스지방정치Brief> 발간
- 로컬거버넌스 네트워크 지원 사업



거버넌스 지방정치연구회

거버넌스 지방정치연구회는 생산적인 지방정치(행정, 의정) 활동을 위한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이론 및 정책 연구, 연수, 경험 교류 및 개발 지원과 로컬거버넌스의 롤 모델 창출을 취지로 활동하는 현직 지방의원 및 단체장 중심의 거버넌스센터의 전문 회원 모임이자 정책 네트워크입니다. 회원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미래형 거버넌스 정치 리더십을 확산하고 거버넌스 국가발전 네트워크의 정치 부문 주체를 형성하는 지방정치연구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명칭

- 거버넌스센터지방정치연구회
(약칭: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회, 지정연)

성격

- 지방 정치의 올바른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인 정책 지원 교류 네트워크

주요 활동

- 상하반기 거버넌스 지방정치 서킷(연수회)
- 거버넌스 분권자치 혁신 공개포럼
-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 활동 내용 공유, 학습 교류 공간
- 선진지 탐방 및 현장 견학
- <거버넌스 지방정치 Brief> 발간

활동 방향

- 실제적인 정책 네트워크 지원 및 연수, 컨설팅을 통해 로컬 거버넌스 성과 도출
- 회원 간 경험 및 노하우의 공유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 거버넌스 포럼 구성
- 지방 정치 혁신 아젠다 도출, 실천 및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거버넌스 정치 혁신 네트워크 확장으로 거버넌스 국가 구현 기반 확대

회원 구성 및 운영진

- 취지에 동의하는 지방정치인, 현장. 연구 전문가 그룹
- 거버넌스센터 멤버십
- 공동대표단, 총무단, 운영위원단

<거버넌스 지방정치연구회 지도위원>

김영배(전 성북구청장), 유종필(전 관악구청장) 차성수(전 금천구청장) 최창식(전 중구청장)

<거버넌스 지방정치연구회 운영진> (2021. 3. 1. 현재)

김달수(경기도의원) 김영수(충청남도 정책보좌관) 박홍순(커뮤니티허브공감 대표) 박문화(남원시의원) 박호근(한체대 교수) 이광희(김해시의원) 윤용석(고양시의원) 이재갑(안동시의원) 전기풍(거제시의원) 최충진(청주시의원)